

국내 소장 『名山勝槩記』의 서지적 고찰*

A Bibliographic Study of *Myeongsanseunggaegi*

강혜규 (Kang, Hye Kyu)**

◁ 목 차 ▷

- | | |
|-------------------------|-------------------|
| 1. 서론 | 3.5 연세대학교 소장본 |
| 2. 『명산승개기』의 선집 과정 | 4. 장서각 소장 판본 |
| 3. 국내 소장 『명산승개기』의 자료 현황 | 『명산승개기』의 비평 양상 |
| 3.1 규장각 소장본 | 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
| 3.2 장서각 소장본 | 『명산기』의 체제적 특징 |
| 3.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6. 결론 |
| 3.4 고려대학교 소장본 | <참고문헌> |

< 초 록 >

이 논문은 국내 소장 『名山勝槩記』의 서지적 고찰로서, 국내 소장된 판본과 필사본을 검토하고 조선 문인이 이 책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한 점을 확인하였다. 여러 판본은 판각 시점이 다르고, 조선에 들어온 시기도 달랐다. 이 책을 본 조선 독자들은 수많은 중국 산수기를 읽는 동시에, 산수기를 비평한 중국 문인들의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장서각 소장 판본의 비평 양상을 통해 다양하고 심층적인 산수기 비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명산기』의 체제적 특징은 조선 문인들이 『명산승개기』의 선집 기준과 체제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지니고 독자적으로 체제를 세워 세계관을 드러낸 흐름의 일환으로 파악될 수 있다.

要語: 名山勝槩記, 산수기, 판본, 필사본, 明清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4S1A5B5A01015224).

** 서울시립대학교 강사(wyeyang@naver.com)

접수일: 2015년 11월 27일 최초심사일: 2015년 12월 3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21일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many versions of the *Myeongsanseunggaegi* (名山勝槩記) with the reading lists of writers in the Joseon Dynasty to confirm that the Joseon writers read this book in various ways. These versions were typeset and imported to Joseon in different eras. The readers of this book in Joseon will have read a great variety of travelogues of scenic places from China and will also have been exposed to various critiques of Chinese writers on such books. As a great number of writers read the travelogues, essays on literary views as well as critiques, secondary critiques of the works would have taken place.

The Joseon writers were critical at the editing criteria of the anthology and at the anthology form itself. Accordingly, some writers changed the form of the *Myeongsanseunggaegi* to show their own world views while some found new ways of putting together a collection of travelogues from Joseon and China.

Key words: version, travelogue, mountain, reedition, reading

1. 서론

조선후기 문인들은 산수 기행문학을 활발하게 창작하고 향유하였으며, 조선 초기와 중기에 비해 名山을 유람하는 인구도 크게 늘어났다. 이는 조선후기 문학사에서 매우 특기할 만한 현상으로서, 그 배경의 하나로 明清 시대 산수기행문학의 유행을 들 수 있다.¹⁾ 명청 시기에는 특히 前代에서 當代까지의 산수기를 선집하고 叢書化하는 양상이 두드러졌고, 이러한 총서본은 조선에 수입되어 열독되었다. 그중 조선 문인에게 큰 영향을 끼친 중국 산수기 선집으로 『名山勝槩記』가 꼽힐 바 있다.

『명산승개기』에 대한 선행연구로, 고연희는 이 책이 조선후기 미술사와 문학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처음 밝혀, 『명산승개기』가 조선 산수유기집의 편집에 영향을 끼친 점과 조선후기 산수유기의 구성과 표현방식에 변화를 일으킨 점을 논하였다.²⁾ 또 박정애는 조선의 실경산수화가 중국의 산수판화집에 영향을 받은 점을 논하는 과정에서 이 책의 삽화를 거론했고,³⁾ 이종묵은 조선 시대 臥遊 문화에 큰 영향을 준 중국 유기집으로 이 책을 지목했으며,⁴⁾ 진재교는 조선후기 당색과 경향을 막론하고 다양한 문인들이 이 책을 애독했고 이 책을 본떠 조선의 산수유기 선집이 만들어진 정황을 밝혔다.⁵⁾ 이상의 연구를 통해 조선후기 미술과 문학을 망라한 예술사에서 『명산승개기』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그 중요성에 비해 『명산승개기』의 존재 양상과 수용 양상은 소상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가령 이 책의 선집 주체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국내에 유입된 판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시도되지

1) 이종묵, “유산의 풍속과 유기류의 진통,” 『고전문학연구』 24(1997). ; 김영진, “朝鮮後期の 明清小品 수용과 小品文의 전개 양상,”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3).

2) 고연희, 『조선후기 산수기행예술 연구』 (서울: 일지사, 2001), 65-73.

3) 박정애, “17-18세기 중국 山水版畫의 형성과 그 영향,” 『정신문화연구』 통권113호(2008).

4) 이종묵, “조선시대 와유 문화 연구,” 『진단학보』 98(2004), 98.

5) 진재교, “眞景山水 연구의 虛에 대한 辨證,” 『한문교육연구』 38(2012), 314-318.

않았다. 그러나 국내 소장된 판본과 필사본을 통해 이러한 서지적인 정보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연구는 조선 문인의 『명산승개기』 수용 양상을 밝히는 출발점이자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는 이 책의 규장각 소장본만이 언급되었지만, 이외에도 각 대학 도서관에 여러 판본과 필사본이 남아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 소장 『명산승개기』 자료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조선 문인들이 『명산승개기』를 수용한 양상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필자가 찾은 국내 소장 『명산승개기』 자료는 규장각에 소장된 2종, 장서각 2종, 국립중앙도서관 1종, 고려대학교 1종, 연세대학교 1종 등이다. 선행연구에서 소개된 규장각 판본 1종을 제외한 다른 자료는 여기에서 처음 소개되는 것이다. 본고에서 이들 자료를 검토하여, 각 자료의 비평 양상과 체제적 특징을 검토하여 조선의 독자가 이 책을 어떤 식으로 수용했는지에 대한 단초를 찾고자 한다. 먼저 자료 현황을 파악하고, 특히 중요하다고 보이는 판본과 필사본을 택하여 그 특징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2. 『명산승개기』의 선집 과정

국내 소장 『명산승개기』 자료를 검토하기에 앞서, 이 책의 선집과정을 대략 살펴보기로 한다. 『四庫全書』에 수록된 『명산승개기』 판본에는 선집자를 알 수 없다고 명시했다. 『사고전서』에 수록된 판본은 遼寧省圖書館 소장본으로 명나라 崇禎 6년(1633) 墨繪齋에서 판각된 것이다.⁶⁾ 다음은 『四庫全書總目提要』 중 『명산승개기』에 대한 설명이다.

『명산승개기』는 선집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何鏗의 책을 증보한 것이

6) 『명산승개기』의 부록으로 제작된 삽도 『名山圖』에 붙은 서문에 승정 6년 가을 목회재에서 판각된 사실이 보인다(『四庫全書存目叢書』 권252, 68면. “崇禎六季春月, 墨繪齋新摹”). 『명산도』에 대해서는 박정애(2008) 참조.

다. 북직에 2권, 남직에 10권, 절강 10권, 강서 4권, 호광 4권, 하남 3권, 산둥 2권, 산서 1권, 섬서 1권, 복건 2권, 광둥 2권, 광서 1권, 사천 2권, 운남 1권, 귀주 1권이다. 앞에 도록 1권으로 대략 명승의 자취를 그렸고, 뒤의 부록 1권은 황탄하고 괴이한 이야기로 『神異經』과 『十州記』의 부류이다. 수록된 작품은 옛 사람들의 유기가 십분의 삼이고, 명나라 문인의 유기가 십분의 칠이며, 채집해 모은 작품이 대단히 양이 많고 뒤섞여 있는 것이 특히 심하다.⁷⁾

위의 提要를 통해 『명산승개기』의 대략적 성격을 알 수 있고, 또 서문과 범례를 통해서도 이 책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책에는 湯顯祖(1550-1610), 王穉登(1535-1612), 王世貞(1526-1590)의 서문 세 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서문 중 왕세정과 왕치등의 서문은 원래 『명산승개기』의 서문이 아니라, 何鏗(1507-1585)이 嘉靖 44년(1565) 선집한 『古今遊名山記』의 서문을 가져온 것이다. 위의 제요에서도 하당이 언급되나, 서문의 중복을 통해 『명산승개기』가 『고금유명산기』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다. 더하여 『명산승개기』의 범례에도 이 책이 하당의 책에 빠진 명나라 시기 문인들의 작품들을 증보하여 만든 것이라는 내용이 보인다.⁸⁾

또 위 제요의 선집자를 알 수 없다는 설에도 불구하고 『명산승개기』를 편찬한 문인에 대해서는 추측해볼 여지가 있다. 먼저 청나라 문인 吳秋士⁹⁾가 편집한 『天下名山記鈔』에 尤侗(1618-1704)이 서문을 썼는데, 여기에서 하당이 『명산기』를

7) 『四庫全書存目叢書』, 大陸版·限中國大陸 發行, 卷254, 467.

“不著撰人名氏。蓋因何鏗之書而增募之。凡北直隸二卷, 南直隸十卷, 浙江十卷, 江西四卷, 湖廣四卷, 河南三卷, 山東二卷, 山西一卷, 陝西一卷, 福建二卷, 廣東二卷, 廣西一卷, 四川二卷, 雲南一卷, 貴州一卷, 前爲圖一卷, 畧繪名勝之跡, 末爲附錄一卷, 則荒怪之說, 神異經十洲記之類也。所錄古人遊記十之三, 明人遊記十之七, 采摭頗富而龐雜特甚。”

8) 『四庫全書存目叢書』 『名山記凡例』, 卷252, 67.

“是編, 本何濱巖先生蒐括群書, 網羅百氏, 已稱詳確, 第當時自王弇州李于鱗而止, 如近日袁公安鍾景陵王山陰諸公, 皆先生所不及見, 故較前集, 於斯爲盛。”

9) 吳秋士의 字는 西湄이고 歙縣 출신이다. 『四庫全書總目提要』에 따르면 그의 『天下名山記』는 하당의 『遊名山記』와 王世貞의 『廣篇』을 선집한 것이며, 한 글자의 考訂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四庫全書總目提要』(二), 『天下名山記鈔』(河北人民出版社, 2000), 2065. “國朝吳秋士編, 秋士字西湄, 歙縣人。其書取何鏗游名山記及王世貞之廣編, 刪而錄之, 無一字之考訂.”).

선집했으며, 왕세정이 이를 증보했다고 하였다. 다음이 그 기록이다.

명나라 하당이 작품을 모아 『명산기』 20권을 삼았고, 왕세정이 증보하여 46권에 이르렀으니, 광대하다고 하겠다.¹⁰⁾

이 기록 중 하당의 『명산기』 20권은 『고금유명산기』를 가리키며, 왕세정이 46권으로 증보했다는 『명산기』는 『명산승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고금유명산기』는 總錄 3권(勝記, 名言, 類考)과 본문 17권을 합쳐 모두 20권이며, 『명산승개기』는 46권이다. 우동의 견해에 따르면 『명산승개기』를 증보 편찬한 문인은 왕세정으로, 국내 학계에서도 이 설을 그대로 수용하였다.¹¹⁾

그러나 이에 대해 『명산승개기』의 범례를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편찬 인물에 대한 기록을 새롭게 제시하는 논의도 있다.¹²⁾ 이 논의에 따르면 편찬자가 왕세정이라는 설은 『명산승개기』 범례 중 편자가 하당이 미처 보지 못한 袁宏道(1568-1610)와 鍾惺(1574-1624), 王思任(1574-1646)의 작품을 증보했다는 기록과 배치된다고 한다.¹³⁾ 실제로 세 문인 중 중성이나 왕사임의 활동 시기는 왕세정의 死後이기 때문에, 왕세정이 이들의 작품을 거두어 증보했다는 논리는 무리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편찬 인물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판본을

10) 『四庫全書存目叢書』 『天下名山記鈔序』, 卷254, 472.

“明何賓巖彙爲名山記二十卷, 王鳳洲增至四十六卷, 以爲廣矣大矣.”

11) 진재교(2012), 314. ; 권석환, “중국 유럽문화와 유기의 상호관계,” 『2011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집(한국한문학회)』 (2011), 38.

12) 臺灣國家圖書館, 古籍與特藏文獻資源, 『名山勝概記/附註項』.

“按吳秋士天下名山記鈔云, ‘此鈔本原本王鳳洲先生名山記廣編, 第王所續收者, 惟袁公安鍾景陵王山陰.’ 卽是書凡例所謂‘知近日袁公安鍾景陵王山陰諸公, 皆先生所不及見’者是也. 凡例謂何鏗不及見袁鍾王三君遊記, 吳秋士竟謂與何鏗同時之王世貞, 乃能續收三君遊記, 何其不學若是! 而爲秋士作序之尤侗韓奕亦謂世貞續收三君文字, 頗疑吳鈔爲坊賈所託. 又楊守敬觀海堂藏本, 較此本多附錄一卷, 題作: ‘明何鏗原編, 慎蒙續編, 盧高張縉彥谷永泰補輯.’”

<<http://rbook2.ncl.edu.tw/Search/SearchDetail?item=ad5a4ceb305b4076952f1fb5d5f4504ffDQzMzQ1>> [검색일 2015. 10. 19].

13) 주8) 참조.

찾을 수 있다. 규장각에 소장된 『명산승개기』의 판본에는 “하당이 편찬했고, 愼蒙이 이어서 편찬했으며, 興國 盧高, 河北 張縉彥, 浚陽 谷應泰가 편집을 증보했다”는 기록이 있다.¹⁴⁾ 신몽은 萬曆 4년(1576) 『天下名山諸勝一覽記』 16권을 선집했고, 장진언(1599-約1670)은 『寧古塔山水記』를 선집했으며, 곡응태(1620-1690)는 『明史紀事本末』과 『博物要覽』 등을 지은 바 있다.¹⁵⁾ 『四庫簡明標注』에는 『天下名山勝槩記』가 하당의 『遊名山記』와 신몽의 『名山諸勝一覽記』를 토대로 증보한 것이라고 하였다.¹⁶⁾ 또 신몽의 『天下名山諸勝一覽記』의 범례에는 “이 책은 하당의 『名山記』가 10분의 6이고, 더하여 『通志』와 별집에서 얻은 기문이 10분의 4”라고 되어 있어,¹⁷⁾ 신몽의 저작 역시 하당의 『고금유명산기』를 토대로 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판본마다 수록된 작품에 가감이 있고, 편찬 인물의 기록이 있는 본과 없는 본이 각각 존재한다. 가령 崇禎 6년 刊本과 靑初刊本 중, 肅宗 6년 간본에는 편찬 문인에 대한 기록이 없고 청초간본에는 편찬 기록이 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편찬 기록이 있는 후대의 판각 시점에는 증보와 교열 및 비평에 참가한 문인이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청초간본에는 조선의 산수기문이 부록으로 들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¹⁸⁾

요컨대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하당의 『고금유명산기』가 편찬된 이후, 신몽과 오추사 등 여러 문인이 하당의 책을 토대로 산수기 선집을 편찬하였고 이러한

14) 『名山勝槩記』, 규장각 소장본 목차 1.

“何鎰 纂, 愼蒙 續, 興國 盧高·河北 張縉彥·浚陽 谷應泰 補輯.”

15) 곡응태의 생몰년을 감안할 때, 규장각 소장본은 1633년 판본이 아닌 후대 판본으로 추정된다.

16) 『增訂 四庫簡明目錄標注 上』(臺北: 世界書局, 1977), 320.

“『天下名山勝槩記』四十八卷圖一卷, 不著編輯人姓氏, 因何鎰『遊名山記』十七卷, 愼蒙『名山諸勝一覽記』十六卷, 而推廣之者. 搜羅前人游歷序記之文, 分省編輯, 至爲詳博, 讀之可當臥遊, 崇禎六年刊本.”

17) 『四庫全書存目叢書』『游名山一覽記凡例』 권251, 3.

“是編本何濱巖『名山記』者十之六, 而增『通志』及別集所得記文者十之四.”

18) 『增訂 四庫簡明目錄標注 上』, 320.

“靑初刊本, 四十六卷, 題明何鎰原纂, 張縉彥等補輯. 游名山記十七卷, 及名山諸勝一覽記十四卷. 附朝鮮國山川.”

산수기 편찬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신몽·노고·장진언·곡응태 등에 의해 『명산승개기』가 편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국내소장 『명산승개기』의 자료 현황

3.1 규장각 소장본

규장각에는 46권50책(이후 규장각 A본으로 칭함)¹⁹⁾과 46권29책(이후 규장각 B본으로 칭함)의 판본 두 종이 있다. 규장각 A본에는 正祖(1776-1800)의 장서인 인 弘齋·承華藏主가 찍혀 있고, 탕현조·왕세정·왕치등의 서문 세 개와 삽도가 있다.

규장각 B본에는 摛文院이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다. 摛文院이란 규장각의 부대시설로 왕의 어제와 어필 등을 편찬하고 보관하는 곳이다. 또 낙장이 있고, 삽도가 빠져 있으며 서문의 경우 왕세정의 서문만 있다. 전술한 바, 이 판본의 권1 목차 앞에는 하당 이외에 신몽과 다른 문인들이 증보했다는 기록이 세 줄로 판각되어 있는데, 이는 규장각 A본 및 장서각 본에 없는 부분이다. 규장각 A본과 비교해보면, 이 판각 부분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B본은 작품 순서가 밀려서 A본의 목차 1b면에 원래 있었던 세 작품이 빠졌고 그 중 한 작품인 王衡의 『游香山記』가 목차 3a면으로 순서가 옮겨졌으며, 대신 A본의 목차 3a면에 있던 두 작품이 빠졌다. 이를 통해 판본이라 해서 목차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편의에 따라 배열순서가 바뀌고 작품이 빠지거나 추가되는 일이 쉽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19) 권수가 구비된 것을 기준으로 하여 구비된 본을 A본(청구기호 奎中 3235)으로 하고, 결락된 본을 B본(奎中 4756)으로 명명하였다.

3.2 장서각 소장본

장서각에는 48권48책(이후 장서각 A본으로 칭함)²⁰⁾과 20권 20책(이후 장서각 B본으로 칭함)²¹⁾의 판본 두 종이 있다. 장서각 B본은 零本으로 두 판본의 목차와 작품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가령 장서각 A본 권2에는 장서각 B본 권2에 수록된 朱德澗의 『異域說』과 李元陽의 『銀山鐵壁漫談』이 들어 있지 않다. 『명산승개기』가 여러 책의 집성과 몇 번의 편찬으로 이루어진 책인 만큼, 지역에 따른 분류라는 큰 열개가 수립된 이후 여러 번 판각되는 과정에서 일부 작품이 추가되거나 탈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장서각 A본의 삽도는 五嶽(泰山, 華山, 嵩山, 恒山, 衡山)과 黃山, 虎山, 武夷山, 西湖 등을 그린 판각화로 총 2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삽도 서문에 康熙乙亥(1695)년 季秋月(9월)에 遙青齋에서 重摹했다는 기록이 있다. 『명산승개기』의 서문 세 편은 모두 들어있지 않다. 규장각 소장본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에는 작품마다 작가와 교열자가 함께 판각되어 있는데 비해, 장서각 A, B본에는 작품 밑에 작가만 표기되어 있다.

장서각 B본은 淸朝 연간 간본으로 비평이 行書로 필사되어 있다. 원래 『명산승개기』에 평점비평이 함께 판각되어 있는데, 이에 덧붙여 다수 독자의 비평이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장서각 A본과 B본에는 모두 李王家圖書之章이 찍혀 있어 왕실 소장본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규장각본과 장서각본의 존재를 통해 조선후기 왕실에서 적어도 4종 이상의 『명산승개기』 판본을 소장하고 있었으며, 시기를 달리 해서 여러 개의 판본이 국내에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략 50권에 이르는 巨帙이기 때문에 왕실과 별열가문을 대상으로 수입되었고, 차후 필사를 통해 다수의 문인들에게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 청구기호 C2-310, 線裝 48卷48冊: 圖, 左右雙邊 半郭 18.8 × 13.5 cm, 有界, 半葉 9行20字, 上白魚尾; 26.4 × 17.3 cm, 印: □邨珍賞, 徵神齋□書記, 櫻山文庫, 李王家圖書之章.

21) 청구기호 C2-311, 線裝 20卷20冊: 左右雙邊, 半郭 19.2 × 13.3 cm, 有界, 半葉 9行20字, 上白魚尾; 26.7 × 16.9 cm, 印: 李王家圖書之章.

3.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국립중앙도서관에는 판본인 32책 본(이후 국도 판본으로 칭함)²²⁾과 필사본 1책(이후 국도 필사본으로 칭함)²³⁾이 있다. 국도 판본의 특징으로 작품마다 교열자의 이름이 작가의 이름과 함께 명기된 점을 들 수 있다. 작가와 교열자가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더 많다. 교열자는 하당을 포함하여 蕭士瑋, 陳昌言, 潘之恒, 沈宗培 등의 명청 시대 문인이다. 또 작품의 평자가 비평 뒤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존재한다. 평자와 교열자는 같은 경우도 있으나, 다른 경우가 더 많다. 가령 龔立本이 지은 『初遊黃山記』는 교열자가 鄭壽昌으로 되어 있고, 미평 뒤에 “鄭壽子”라는 이름이 명기되어 있다. 이 경우는 교열자와 평자가 동일한 인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경우를 제외하고 평자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전술한바, 하당이 유기를 선집한 이후 다수의 문인이 선집을 증보하고 교열하며 비평하는 공동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에 『명산승개기』에서 보이는 비평에는 한 사람의 관점과 기준이 아닌, 다수의 명나라 문인의 유람관, 문장관, 인물관, 세계관 등이 집약되었다. 따라서 이를 읽은 조선의 문인들 역시 유람과 유람문학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국도 필사본은 대상 지역의 선정과 지역을 배치한 순서에서 판본과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어, 조선에서 중국 판본과 다른 독자적인 체제가 구상되었던 사실을 보여준다.

3.4 고려대학교 소장본

고려대학교에는 48권 24책 판본(이후 고려대 판본으로 칭함)²⁴⁾과 필사본 4권

22) 청구기호 古古6-75-20, 32册: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19.0 × 13.5 cm, 有界, 9行20字, 上下向白魚尾; 26.3 × 17.0 cm.

23) 청구기호 古貴2817-20, 1册(86張): 12行32字; 24.0 × 16.2 cm, 印文: 帝室圖書之章, 林興寬章, 寶城陳人.

24) 청구기호 육당B10-B5-1-24, 48卷24册; 23.7 × 15.4 cm.

4책(이후 고려대 필사본으로 칭함)²⁵⁾ 두 종이 있다. 고려대 판본에는 일부 작품의 목차 위에 원 모양의 표시나 점이 찍혀 있어, 선집에 넣을 작품을 표기하고 있다. 고려대 필사본은 축약본으로, 『명산승개기』 목차의 지역별 순서는 동일하되 작품의 수가 축소되고 작품의 일부가 발췌되어 있으며, 판본의 비평과 별도의 평점 비평이 이루어져 있다.²⁶⁾

고려대 A본의 목차에 있는 표시는 국내에서 『명산승개기』 독서와 함께 선집 작업이 이루어진 현상의 주된 근거가 되며, 고려대 B본은 실제로 선집이 이루어진 일례가 된다. 특히 B본의 평점비평은 국내에서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별도의 비평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3.5 연세대학교 소장본

연세대학교에는 본문 46권46책과 목록 1권으로 이루어진 판본 1종²⁷⁾이 소장되어 있다. 목록 1권은 훼손이 심해 원본 열람이 불가능했다. 서문이 있고 본문은 삽도가 없는 것 외에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

이상 국내의 판본들을 검토한 결과 판본들 간에 목차가 착종되고 작품이 누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판각된 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여러 번 재판되었으며, 조선에 들어온 시기도 각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검토를 토대로 국내 소장 판본과 필사본 중 보다 주목을 요하는 이본을 택하여 그 특징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판본 중에는 독자의 비평이 필사되어 있는 장서각 B본을 택하고, 필사본 중에는 판본과 달리 목차를 재구성한 국도 필사본을 선택하였다.

25) 청구기호 육당B10-A12-1-4, 4卷4册, 四周雙邊 半郭 14.0 × 9.2 cm, 有界, 10行20字, 上白魚尾; 21.1 × 13.8 cm.

26) 고려대 B본 권1에 수록된 陸錢의 『春遊西山記』에 붓으로 침권이 찍혀 있다. 판본 『명산승개기』에는 “若陝之終南~觀之地” 대목에 침권이 찍혀 있는데 비해, 고려대 B본은 “其崢嶸壯偉~奇觀矣” 대목에 초록색으로 침권을 찍어두었다.

27) 청구기호 고서(한상익) 915.2 하당 명-연 -1~47, 46卷46册, 共47册,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19.4 × 13.6 cm, 有界, 9行20字, 上下向白魚尾; 26.1 × 16.8 cm.

4. 장서각 소장 판본 『명산승개기』의 비평 양상

장서각 B본에는 작품 상단과 말단에 다수의 비평이 필사되어 있는데, 평자의 정체는 미상이고 필체가 달라 적어도 서너 명 이상의 평자로 추정된다. 그 중에는 “丁亥 夏日 玄達道人 題”라는 구절이 보이는데, 구체적인 연도나 인물의 정체를 추정하기는 어렵다.²⁸⁾ 필사된 비평은 다수 문인에 의해 이 책에 대한 비평이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 비평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문장에 대한 확고한 관점 아래 포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둘째, 작품 선집의 의도를 보인다는 점, 셋째, 비평이 문체·표현력·견문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각각의 사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먼저 긍정적인 비평으로는 송나라 문인 程秘(1164-1242)의 『遊金華三洞記』에 대해 “문장이 폭에 차지 않았으나, 모사가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 옛날과 지금 사람이 두드러지게 다름이 이와 같다”(文不盈幅, 而摹寫已盡, 古今人之懸絕如此)라고 한 비평을 들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인 비평으로 王思任에 대한 평을 들 수 있는데, 그의 『仙巖』에 대해 “모두 小家의 등급에 속하니 싫어할 만하다”(皆屬小家數, 可厭)라는 평을 달았으며, 『越遊雜記』에 대해 다음의 평을 달고 있다.

일찍이 기이한 생각과 뛰어난 말이 없지 않았다. 이에 잘달고 비루하며 진부하고 지리한 말과 뒤섞여 모호하고 더러운 습속의 자구를 거느려 때로 사람으로 하여금 역겹게 한다. 생각건대 당시 습속이 사람을 변화시켰고, 또 점차 연마하게 할 수 있는 밝은 스승과 도움을 주는 벗이 없었던 것인지, 혹 스스로 그 재주를 믿어 다시 생각을 순수하게 하지 않고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지, 아깝구나.²⁹⁾

위 비평을 통해 평자는 왕사임의 문체를 혐오하는 문장관을 지녔으며, 그의

28) “丁亥 夏日 玄達道人 題”(『遊黃山紀略』 후평, 장서각 B본, 권6).

29) “未嘗無奇思雋語, 乃雜以纖陋庸腐支離, 牽率模糊穢俗之字句, 時令人欲嘔. 想當時習俗移人, 而又無明師益友爲之漸磨, 或自恃其才, 不復純慮心受益也. 惜哉.”(『越遊雜記』 후평, 장서각 B본 卷18).

사상과 문장 실력을 일부 인정하지만, 전반적으로 그의 인품과 문장을 폄하하며
명대 풍조를 부정적으로 보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宋濂(1310-1381)의 「桃花澗修禊詩序」에 대해,

침착하고 생동적이어서 고문대가의 법도를 모두 갖추고 있으니, 해와 달이
하늘을 지나고 강이 땅을 흐르는 것과 같아 눈이 있는 자라면 모두 볼 수 있다.
어찌해서 嘉靖 隆慶(1521-1572) 이후의 문장은 험하고 꺾끄럽지 않으면 진부
하고 어지러워서 사람이 보면 토하고 싶게 만드는가? 아마도 풍조가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국운이 장차 끝나려 해서 그러한 것인가 보다.³⁰⁾

라고 하였다. 위 비평을 통해, 평자가 明末의 문체보다 古文의 법도를 중시한
관점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작품을 취사선택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특정 작품 위에 “선집에
넣지 않겠다”(不得入選)는 짧은 코멘트를 남기거나 작품 제목 위에 동그라미를
표시해 선집에 넣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비평이 다양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산수기 중에 보이는
유람 양상을 기준으로 “유람의 맛을 얻었다”(得遊者之味), 또는 “이 유람은 이미
그 승경을 끝까지 찾을 수 있었다”(此遊已能窮其勝)와 같이 평하기도 하고, 견문
을 기준으로 “기이한 소문”(異聞)이라고 비평하기도 하고, 문장의 성향을 기준으
로 “문장이 맑고 밝다”(文境清明)는 평을 하기도 하며, 표현력을 기준으로 “명료
하기가 손바닥을 보는 것 같다”(明如指掌)는 평을 하기도 한다. 그 외 산수기가
유람에 도움이 되는 점을 주목하여, “이 글에서 형상이 다 묘사되었으니, 그 지역
을 지나는 유람객은 마땅히 이 글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此文摹寫盡態, 遊人經
其地者, 當爲注目)라는 평을 남기기도 하고, 산수기의 대상이 된 지역에 대한
지리적 설명을 서술하기도 한다.

요컨대 장서각 소장 판본 『명산승개기』를 통해, 이 책의 독자들에게 의해 산수기

30) “沈着生動, 古文大家法度具在, 如日月徑天, 江河行地, 有目所能共觀, 何嘉隆以後之文,
非險澁即腐爛, 令人見之欲嘔, 豈風氣之移人, 抑國運之將終也。”(「桃花澗修禊詩序」 후평,
장서각 B본, 卷20).

비평이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진 양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비평들을 읽었을 문인들 역시 산수기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안목을 향상시켰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명산기』의 체제적 특징

이제 『명산승개기』의 필사본 중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명산기』의 체제적 특징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은 1권 1책으로 표제는 “名山記”이고, 표지에는 하남·산동·산서·섬서·북건·광동·광서·사천·운남 아홉 지역이 수록되어 있고 목차에는 하남·산동·산서·섬서·호광의 다섯 지역의 유기가 수록되어 있다. 본문은 목차의 지역 순서를 대체적으로 따르고 있다. 판본 『명산승개기』가 열다섯 지역의 유기를 수록한 것과 비교하면 꽤 많은 지역이 누락된 것이다. 그렇다면 선택과 누락의 기준은 무엇이며, 그 기준을 든 근거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볼 수 있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우선 국도 필사본의 누락된 지역과 선택된 지역이 판본 『명산승개기』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국도 필사본의 표지와 목차 모두에서 누락된 지역은 북직예와 남직예·절강·강서·귀주의 다섯 곳이다. 그런데 판본 『명산승개기』에서 이 지역들은 상당한 분량을 차지한다. 본문인 총 46권 중 북직예가 2권, 남직예가 10권, 절강 10권, 강서 4권, 귀주 1권으로 총 27권에 해당하여 권수의 절반을 넘는다. 또한 이 중 북직예와 남직예·절강·강서는 판본 순서상 가장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위치한 지역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다음으로 국도 필사본의 목차에 수록된 다섯 지역이 판본 『명산승개기』에서 차지하는 분량을 살펴보기로 한다. 하남·산동·산서·섬서·호광의 다섯 지역을 다룬 유기는 판본 『명산승개기』 중에서 총 11권에 해당하고 있다. 이는 앞서

누락된 다섯 곳의 해당 권수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국도 필사본의 선집자는 판본 『명산승개기』에서 다룬 비중과 관계없이 이 다섯 지역을 선택하였다.

이번에는 국도 필사본의 지역별 순서를 판본 『명산승개기』의 순서와 비교해보기로 한다. 국도 필사본은 하남-산동-산서-섬서-호광 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데 비해, 판본 『명산승개기』의 순서는 다섯 지역에 한정하여 호광-하남-산동-산서-섬서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³¹⁾

이처럼 지역을 제외한다거나 지역별 순서를 바꾸는 등의 변경에는 선집자의 편찬 의도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도 필사본에는 서문이 있지 않아 편찬 의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관련하여 방계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다. 18세기 조선 문인인 李胤永(1714-1759)의 『名山紀』와 尹冕東(1720-1790)의 『名山記』는 중국 역대 산수유기 선집으로, 책은 현전하지 않으나 서문이 남아 있다. 이윤영의 『名山紀』에는 李麟祥(1710-1760)과 金純澤(1714-1787)이 서문을 썼으며, 윤면동의 『名山記』에는 自序가 남아 있다. 먼저 이들 서문을 통해 편찬자의 편찬 목적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은 윤면동의 서문 일부이다.

대저 산수를 유람하는 것은 실로 많이 서술을 하여 이채롭게 하며 또 기이한 곳으로 좇는다. 石崇의 「金谷詩序」와 王羲之의 「蘭亭序」는 풍류와 음주로 흥얼거려 화려하고 실속이 없으며 謝靈運이 산을 열어 험한 곳을 오르는 것은 사치스럽기는 한데 실정이 적다. 李太白이 머리를 들어 하늘의 이치를 묻는 것은 기세가 넘치고 뜻은 거칠다. 尙長과 宗炳은 기이하고 癖이 있다. 당나라 杜甫의 曲江 시와 송나라 蘇東坡의 西湖는 사치하고 화려하고 호방하고 방탕하며 음란하다. 도교와 불교의 글은 짐승과 함께 木石에서 노니는 것 같아 말라 비틀어지고 쓸쓸하며 잠꼬대에 텅 비었으니, 이는 애초에 유람의 범주에 들어갈 것도 없다.

유람은 허위가 없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허위가 없음을 참으로써 하며, 참된 것은 눈으로 보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데, 마음은 본성이 성품에 근본을 두고 心目으로 나오니, 유람이 여기서 진실되고 거짓이 없다. 아! 두 도읍과 五嶽·四海·九州가 모두 오랑캐의 지역이구나. 지금의

31) 이상의 국도 필사본 목차의 체계적 특징은 강혜규, “농재 홍백창의 『동유기실』 연구,” (박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50-51 참조.

유람하는 이는 장차 석승과 왕희지가 되겠는가? 사령운과 이태백이 되겠는가? 상장과 중병이 되겠는가?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狂이고 癖이거늘 또한 어찌 법으로 삼기 충분하겠는가? 하물며 唐宋의 음란함과 불교와 도교의 허황됨에 있어서이겠는가? 이것이나 저것이나 본성에서 멀고 心目을 미혹하니, 아아. 유람에서 얻을 것이다. 선비가 세상에 은둔해서 산수의 유람을 하는 자로 謝翱과 方鳳³²⁾과 같이 한다면 아마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이 책에는 오히려 석승의 『금곡시서』와 왕희지의 『난정서』 이하 여러 작품이 있으니 어찌서인가. 공자는 鄭나라 노래를 내쳤으나 『詩經』을 편찬할 때에 미쳐서는 인하여 기록했다. 程子가 말하길 『春秋』에는 큰 뜻 수십 개가 해와 별처럼 빛난다고 했다. 혹은 넓혀서 경계를 보이고 혹은 간략히 해서 그 미세한 것을 언다고 하니 또한 각각 그 뜻이 존재한다고 하겠다.³³⁾

윤면동은 서문에서 산수문학에 대한 가치관과 유람관 및 선집에 대한 시각을 뚜렷하게 제시한다. 그는 산수를 외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아닌, 산수의 형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숨김없이 바라보는 것을 바람직한 유람이라 주장한다. 산수 문학으로 유명한 전대의 문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의리와 절개를 중시한 문인들을 화려하거나 사치하며 광기가 있거나 기벽하다고 비난하고, 왕조에 대한 절개와 의리를 강조한 문학을 最上으로 평가한다. 즉 산수를 자연의 미적 표현이 아닌 작가의 역사와 세계에 대한 가치관과 감정을 표상하는 매개체로 보고 있다. 이는 산수를 도의 구형체로 본 16세기 도학자들의 산수관 및 미적 표현으로 본

32) 謝翱과 方鳳: 謝翱는 宋나라 문인으로 『西臺慟哭記』를 지었다. 『서대통곡기』는 元과 싸우다 죽은 南宋의 장군 文天祥을 추모하는 내용이다. 方鳳 역시 송나라 문인으로 송나라가 망하자 은거하였다. 이 두 문인을 들어 윤면동은 멸망한 明을 애도하며 은거하는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33) 尹冕東, 『娛軒集』 「名山記序」 卷3, 87-89. 규장각 소장본.
“夫遊山水者, 固多術而文, 亦隨而異矣. 金谷蘭亭, 風流觴詠, 華而不實, 康樂之開山躋險, 侈而不情, 太白之搔首問天, 狂而志荒, 尙平少文, 奇而癖, 唐之曲江, 宋之西湖, 奢麗豪侈, 蕩而淫, 僂道釋佛, 如鳥獸木石, 枯寂謊虛, 斯蓋未始得乎遊矣. 夫遊者貴乎不僞, 不僞者以眞, 眞者不目, 不目者以心, 心者本性根於性而發之心目, 遊於是乎眞而不僞矣. 噫! 兩都五嶽四海九州, 皆爲腥氈之域矣. 今之遊者, 其將爲石王乎, 謝李乎, 尙宗乎? 華也侈也狂也癖也, 又何足法乎? 況乎唐宋之淫, 仙佛之虛乎? 彼此遠於性, 而迷於心目. 惡乎! 得其遊哉. 士之隱遁于世, 爲山水遊者, 其若謝翱方鳳者, 其或可乎? 然則是篇猶有金谷蘭亭以下諸篇者, 何也? 孔子放鄭聲, 及乎編詩, 仍錄之. 程子曰: ‘大義數十, 炳如日星.’ 或博而示戒, 或簡而闡其微, 亦各存其義焉.”

17세기 문예가들의 인식과는 또 다른 산수관이라고 생각된다. 추상적 가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일견 도학자들의 산수관에 가까우나, 인격의 수양보다는 당면한 현실과 세계에 대한 가치와 감정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산수기 편집을 『春秋』를 편집한 공자의 뜻과 동일시하여, 이 선집에 최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산수기 편찬을 공자의 『춘추』 편찬에 비견할 정도로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인상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이인상은 다음과 같이 이윤영의 『名山紀』의 가치를 부각하고 범례를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예컨대 李子胤之[이윤영-인용자]가 편찬한 『名山紀』는 민멸할 수 없는 것이 있다. 李子는 시대와 인생을 슬피하며 강개하고 근심하여 멀리 유람할 것을 생각했으나, 이루지 못했다. 이에 이 편에 뜻을 두어, 泰山을 먼저 적어 선왕이 처음 순행하고 성인이 밟은 바를 삼았고, 다음으로 崇山을 적어 천하의 중심을 드러낸 것이다. 그 다음으로 華山을 적어 서쪽으로 돌아가는 뜻을 은근히 드러내었다. 세상의 운수가 날로 남쪽으로 가니 이 때문에 衡山을 다음으로 기록하였고, 북방의 夷狄을 문명이 아닌 것으로 여겨서 그 다음으로 恒山을 기록하였다. 五嶽이 위치가 정해졌고, 명산대천이 각각 그 자리로 돌아가 華夷의 구분이 바로잡혔다. 富春과 冠浙의 산을 드러내고, 武侯[제갈량]와 元亮[도연명]의 뜻을 밝히고 두 省의 승경을 다하여 충신과 현자의 出處를 드러내었다. 아아. 『山海經』과 『穆天子傳』은 기이한 것을 기록한 것이 많기 때문에 신지 않았고, 거대한 곤륜산도 오랑캐라 여겼기 때문에 종주로 삼지 않았다. 비록 도를 행하는 책임은 없지만 곤궁한 선비의 권한이 있으니, 문밖을 나가지 않고도 천하의 큰 것을 평가할 수 있어 명을 바로잡고 의리를 재서 세상에 은둔하는 생각을 불었다. 그 뜻이 매우 은미하나 비록 경서와 역사서를 보조하는 것이라 이르더라도 괜찮을 것이다. 나는 이 편찬이 거의 성인과 함께 세상을 근심하는 것이라 생각하니 후대의 군자가 반드시 그 뜻을 슬프게 여김이 있을 것이다.³⁴⁾

34) 李麟祥, 「名山紀序」 戊辰, 『凌壺集』 卷三.

“若李子胤之所編名山紀, 其有不可泯焉者矣. 李子哀時悼生, 愴憤於悒, 思遠游而不可得, 故寄意於此編, 首紀泰嶽者, 爲先王之始狩, 聖人之所履也, 次紀崇嶽者, 以表天下之中也, 次紀華嶽者, 以寓西歸之思, 世運日南, 故次紀衡嶽, 鄙夷北方, 故次紀恒嶽, 五嶽定位, 而名山大川, 各歸其所, 華夷之分正矣. 表章富春冠浙之山, 明武侯元亮之志, 以盡二省之勝, 而爲忠賢之出處著矣. 嗚呼! 山海之經穆王之傳, 記異爲多, 故不載焉. 崑崙之大而夷之, 故不宗焉. 雖無行道之責, 而有窮士之權, 不出戶而權天下之大, 正名度義, 以寓遜世之思, 其旨甚微, 雖謂之羽翼經史可歎. 余意此編幾與聖人同憂, 後之君子, 必有悲其志者矣.”

위 이인상의 서문을 통해 이윤영이 편찬한 『명산기』의 범례를 파악할 수 있다. 이윤영의 『명산기』 편찬은 그의 문학적 취향이 아닌 시대인식에서 시작되었으며, 구체적으로 그 뜻을 밝히는 방식으로 본래 『명산기』의 편찬을 수정하여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또 지역에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부여하여 순서에 우열을 두고 지역의 선정과 삭제를 통해 華夷觀을 드러내었다. 덧붙여 기이한 작품을 삭제한 것에서 산수기 편찬에 문예성보다 이념성을 강조했다라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윤영은 지역적·세속적인 중요도를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가령 곤륜산은 아시아 최대 산맥이자 황하의 발원지로 거대하고 높은 봉우리들로 이루어져 중국 산수를 거론할 때 으뜸으로 꼽히나, 이윤영은 이와 관계없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사상적·문화적 맥락을 기준으로 五嶽의 뒤로 돌렸다. 즉 실제 산수의 아름다움이나 크기의 대소는 이윤영에게 부수적인 문제였으며, 자신의 이념을 표상하는 것을 우선시했다. 이인상은 이윤영의 산수기 편찬을 선비가 도를 행하는 책무로 삼았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또 이 책이 경전과 역사서를 보조하며, 선집한 뜻이 성인과 견주어질 정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관련하여 이 책의 제목은 “名山記”가 아닌 “名山紀”라는 점도 주목된다. “記”라는 글자는 단순히 기록의 의미를 가지지만 “紀”는 법칙을 의미하고 역사를 기록하는 문체를 뜻하기도 한다. 이로 미루어 “名山紀”라는 제목에는 산수를 형상화한 작품들을 계통에 따라 배열하고 역사성을 부여하여 하나의 法式을 만들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본래 『명산승개기』는 산수에 대한 문학작품선집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지만, 이윤영은 이와 완전히 다른 지향을 두고 새로운 선집 방식을 구성한 것이다. 이는 세상에 뜻을 펼 수 없어 은거한 시대에서 자신의 사회적 존재의미를 찾는 방도로 삼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의식은 이윤영 개인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와 가치를 함께 하는 벗인 이인상과 김순택 등에게 공유되어 높이 평가되었다. 앞서 살핀 윤면동의 선집관 역시 그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산수기 선집에 천하 질서를 재규정하는 광대한 뜻을 담은

것일까? 이들은 介潔한 高士 의식을 지니고 있었던바, 당시 明이 망하고 淸이 집권한 현실을 화이관으로 대변된 천하질서가 무너진 것으로 인지했다. 또한 丙子胡亂으로 인한 상처와 패배로 받은 치욕을 잊지 못했고, 조선이 청나라의 강한 세력으로 인해 원치 않은 우호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좌절감을 느꼈다. 이들은 당면한 시대에 대한 비관적 인식과 현실적 삶에서의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연으로 도피하여 근심을 잊고자 했고, 나아가 이를 초월하여 자신들이 위로를 받은 자연과 문학을 매개로 사회적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했다. 이에 五嶽이 있는 각 지역마다 역사적·사상적·문화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재배치함으로써, 무너진 질서가 회복된 가상의 천하를 창출한 것이다. 이로써 이들은 도를 행하는 선비로서의 자의식과 자존감을 회복하고 고결한 隱士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이라 자부할 수 있었다.

이는 조선중화사상과도 연결되어 있다. 胡亂 이후 조선 선비들은 무력감과 자괴감을 회복할 방안을 모색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가 바로 조선중화사상이다. 조선중화사상은 명의 멸망으로 인해 중국이 더 이상 중화의 정통성을 갖지 못하고 조선이 중화의 맥을 계승했다는 인식이다. 조선이 비록 세력은 약하나 문화의 정수를 간직했다고 확신한 선비들은 조선을 천하질서를 회복하고 중화 문명을 잇는 존재로 여겼다. 관련하여 다음 김순택의 서문 중에 나오는 문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禹貢』편은 四海 안을 총괄해서 九州를 소속시켰으니 구주의 경계를 바로 하여 冀州에 매어둔 것이다. 기주는 우 임금의 도읍을 삼았던 곳이어서 특별히 들어서 맨 앞에 기록한 것이다. 그 까닭은 八州와 자연히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尊王이란 하나로 정통을 세우는 의리이니 또한 역사서술의 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이후 사마천, 반고 이래 산수지리를 기술한 책도 모두 京師로 으뜸을 삼은 것이다.

오호라! 중국 땅이 夷狄이 된 것은 거의 백년이 된다. 이때에 처해서 관복과 선왕의 음식이며 의식이 左衽의 풍속에 빠지지 않은 것은 유독 우리가 기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진실로 吳季子와 韓宣子³⁵⁾ 같은 군자들이 있어서

35) 吳季子와 韓宣子: 춘추시대 吳나라 사람 季札과 晉나라 사람 韓起를 말한다. 季札은 魯나라

皇明의 옛 문물을 보고자 한다면 우리나라를 보지 않고 어디 가서 증험을 하겠는가. 그런즉 우리나라가 비록 조그만 나라이긴 하지만 그 중국의 문헌에 대해서는 夏殷의 杞宋과 같으니 민물시키는 것은 불가한 것이다. 중국의 13성 중에서 북직에는 수도가 되는 땅인데 지금 胤之氏[이윤영-인용자]는 천하의 명산을 기록하면서 폄하하여 종주로 삼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가 말하길, “지금의 북직에는 이적이 거하는 곳인데 내가 이를 취하여 근본으로 삼는다면 나의 책을 보는 자들이 무엇으로 중국이 높음을 알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五嶽을 스스로 으뜸으로 삼는데 태산을 특히 맨 머리(앞)에 놓았다. 이 밖으로는 시대의 성세와 풍기의 높고 저하되는 것, 현인 군자가 사는 곳을 따져서 앞뒤로 편찬을 하였다. 그 黜陟과 興奪은 비록 권도의 가운데에 모두 다 합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요컨대 그 귀결처는 尊華賤夷로 본을 높이고 지업을 억제하는 것이 능연히 저절로 한 예가 될 것이니 군자는 깊이 취할 것이 있을 것이다.”

윤지씨는 옛것을 좋아하고 산수를 즐기며 옛 圖畫와 기술을 모아, 특별히 편차의 순서를 취하여 그 뜻을 가탁하였다. 이 책의 범례는 많으나, 나는 유독 그 근본이 『서경』 『우공』에 합하지 않은 것을 들어 자세하게 말한다. 곧 황명을 높이는 뜻을 깊이 밝혀 시대의 불행을 슬퍼하기 때문이다.³⁶⁾

김순택은 『禹貢』 이후 역대 중국 산수지리서가 모두 당대 수도를 근본으로 삼았다는 점을 서술한 후, 화제를 돌려 명나라 멸망 이후 조선이 중화문물이 보존된 유일한 곳이라고 선언한다. 이후 이윤영의 『명산기』가 역대 산수지리서와 달

라에 가서 周나라 음악을 관람했으며, 韓起 역시 魯에 사신으로 가 주나라의 예법이 노나라에 남아 있음에 감탄했다고 한다.

36) 金純澤, 『志素遺稿』 『胤之名山記後序』 卷2, 31-3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禹貢之書，總四海之內，而屬之九州，正九州之界而繫之冀州。冀州，禹夏之所都也，特舉而書之於首，乃所以自別於八州。而尊王者，一統之義，亦史氏之一法也。故其後，司馬遷班固以來記山水地理之書者，咸以京師爲宗。嗚呼！中國之爲夷狄，且百年矣。居今之時，官服先王飲食籩豆，不淪於左衽之俗者，獨我箕子之邦爲然。苟有君子如吳季子韓宣子者，欲觀于皇明文物之舊，不觀於我而于何徵之哉？然則我雖小邦乎，其於中國文獻猶夏殷之杞宋也，其不可泯泯爾也。皇明之十三省，北直隸爲其建都之地，而今胤之氏之記天下名山也，貶而不宗，何哉？其言曰：“今之北直隸，夷狄之所居也，我乃取而宗之，觀我書者，孰知其爲尊中國乎？於是，以五嶽自爲宗，而書岱於首，其餘取時代之盛衰，風氣之汚隆，及賢人君子之所處，而先後之。”其黜陟予奪，雖未必盡合於權度之中，而要其歸貴華而賤夷，崇本而抑支，凜然自爲一例，君子深有取焉。胤之氏好古喜山水，集古圖畫及記述之文，而特取編次之序而寓其義。此書之立例者多矣，余獨就其所宗之不合於禹貢者，而詳言之，乃所以深明其爲尊皇明而哀其時之不幸焉。”

리 당시 청의 도읍인 北直隸를 우선시하지 않고 새로운 편차를 택한 이유를 묻는다. 이어 그 답으로 이운영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 이운영은 북직예는 夷狄이 거하는 곳이므로 이를 근본으로 삼는다면 독자들이 중국이 높은 것을 알 수 없으리라고 답하고, 이에 오악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편차를 세워 무너진 화이론과 出處觀을 바로잡고자 하는 뜻을 담았다고 한다. 현실의 수도를 부정하고, 화이 질서가 구현된 세계를 지향하는 뜻을 볼 수 있다. 이때 중국은 지역적·실체적인 중국이라기보다 이상적·이념적인 중국으로 곧 화이론이 구현되는 공간을 뜻한다. 요컨대 이운영의 『명산기』 편찬에는 오직 조선에서만 천하질서가 회복된 이상공간을 사유하고 이를 실체화할 수 있다는 뜻밖의 신념과 의지가 담겨 있다.

이상의 『명산기』 서문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실제 남아있는 국도 필사본 『명산기』의 목차를 살펴보면, 편차를 통해 편찬자의 세계관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필사본은 판본 『명산승개기』의 순서와 차별되게 지역을 독자적으로 배열하였고, 청의 수도가 있는 北直隸와 南直隸 부분을 누락시키고 있다. 또한 국도 필사본의 목차에 수록된 다섯 지역(하남·산동·산서·섬서·호광)에는 각각 중국의 오악인 嵩山·泰山·恒山·華山·衡山이 위치하고 있다. 하남은 중앙, 산동은 동쪽, 산서는 북쪽, 섬서는 서쪽, 호광은 남쪽에 위치해 있다. 그런데 국도 필사본의 다섯 지역의 순서는 하남-산동-산서-섬서-호광의 순으로 중앙에서 시작하여 동-북-서-남 방향 순이고, 이에 비해 판본 『명산승개기』에서 이 다섯 지역은 호광-하남-산동-산서-섬서의 순으로 남쪽에서 시작하여, 중앙-동-북-서의 순이다. 즉 국도 필사본의 선집자는 판본 『명산승개기』에 나오는 순서의 시작점을 남쪽에서 중앙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국도 필사본의 지역별 순서는 오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장 처음에 숭산이 자리 잡은 하남이 놓이고 있다. 숭산은 천하의 중앙을 의미하는 산으로서, 이러한 순서는 中[中華]을 우월하게 보는 편찬자의 의식과 연결되어 있으리라 추정된다.³⁷⁾ 즉 국도 필사본은 조선후기 다수의 문인이 오랑캐 지역으로 여긴 북직예와 남직예가 누락되고 오악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숭산을 우선으로 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이운영과 윤면동과 마찬가지로 화이

37) 강혜규(2014), 52 참조.

관에 의거한 편집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요컨대 이운영, 이인상, 김순택, 윤면동을 포함한 일군의 조선 문인들에게 산수기 선집의 편차는 단순히 작품의 순서를 정하는 것을 넘어 편찬자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는 산수기를 향유하는 독자적이고 특징적인 방식이 되었으며, 편찬자와 비평가, 독자층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6. 결 론

이제까지 국내 소장 『명산승개기』의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조선 문인이 이 책을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한 점을 확인하였다. 국내 소장된 여러 종의 판본은 판각 시점이 다르고, 조선에 들어온 시기도 다르다. 이 책을 본 조선 독자들은 수많은 중국 산수기를 읽는 동시에, 산수기를 비평한 중국 문인들의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수의 문인들의 유람관, 문학관, 비평관을 읽는 과정에서 2차 비평이 이루어졌으리라 여겨진다.

또 조선 문인들은 『명산승개기』의 체제를 독자적으로 바꾸어 자신의 세계관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일군의 高士에 의해 이루어진 『명산승개기』의 재편집은 조선 중화사상과 연결되어 화이론이 구현되는 이상공간을 창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참고문헌>

- 『名山勝槩記』. 遼寧省圖書館 소장본.
- 『名山勝槩記』. 규장각 소장본.
- 『名山勝槩記』. 장서각 소장본.
- 『名山勝槩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名山記』. 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名山勝槩記』. 고려대학교 소장본.
- 『名山記』. 필사본. 고려대학교 소장본.
- 『名山勝槩記』. 연세대학교 소장본.
- 『四庫全書存目叢書』 卷252-254. 齊魯書社出版發行, 1996.
- 邵懿辰 撰. 『四庫全書總目提要』.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2000.
- 楊家駱 編. 『增訂 四庫簡目標注』. 臺北: 世界書局, 1977.
- 李麟祥. 『凌壺集』. 한국문집총간본.
- 尹冕東. 『娛軒集』. 규장각 소장본.
- 金純澤. 『志素遺稿』.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臺灣國家圖書館. 『古籍與特藏文獻資源』. <<http://rbook2.ncl.edu.tw/>>.
- 강혜규. “농재 홍백창의 『동유기실』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 강혜규. “조선 문인들의 明清 산수유기 향유 양상: 『名山勝槩記』 독서 양상을 대상으로.” 『2015년도 한국한문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집』(2015. 4). 33-42.
- 고연희. 『조선후기 산수기행예술 연구: 鄭勳과 農淵 그룹을 중심으로』. 일지사, 2001.
- 권석환. “중국 유람문화와 유기의 상호관계.” 『2011년도 한국한문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집』(2011. 12). 27-42.
- 권석환. “중국 전통 유기의 핵심 시기 문제.” 『한국한문학회연구』 49(2012). 42-68.
- 김영진. “朝鮮後期の 明清小品 수용과 小品文의 전개 양상.”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3.
- 박정애. “17-18세기 중국 山水版畫의 형성과 그 영향.” 『정신문화연구』 통권 113호 (2008). 131-162.
- 심경호. 『여행과 동아시아 고전문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1.

- 안대회. “조선 후기 소품체 유기의 연구.” 『대동문화연구』 79(2012). 211-243.
- 이종묵. “조선시대 와유 문화 연구.” 『진단학보』 98(2004). 81-106.
- 이종묵. “유산의 풍속과 유기류의 전통.” 『고전문학연구』 24(1997). 385-407.
- 정 민.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휴머니스트, 2007.
- 정우봉. “18-19세기 기행일기의 새로운 경향과 그 의미.” 『2011년도 한국한문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집』(2011. 12). 73-95.
- 정우봉. “조선후기 유기의 글쓰기 및 향유방식의 변화.” 『한국한문학회연구』 49(2012). 102-137.
- 진재교. “眞景山水 연구의 虛에 대한 辨證.” 『한문교육연구』 38(2012). 309-341.